

필연에 순종하기

‘무슨...선교하려고 방학했어?’

이 말은 내가 이번 겨울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겨울 방학, 한달 반 남짓의 시간동안 통영 선교, 태국 선교를 계획했었기 때문이다. 처음 나의 마음은 당연히 가능하디었지만, 통영 선교를 다녀온 후 나의 몸과 마음이 생각보다 지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떠나는 날까지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가득했다.

그렇게 태국에 도착해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첫날 밤을 보냈다. 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라도 했던 듯, 다음 날 아침모임에서 태국의 아름다운 모습과 팀원의 장점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사소한 미션이 나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태국이라는 나라와 현지인을 선교의 대상이 아닌, 먼저 이해해야하는 대상으로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현지인의 삶이 눈에 들어왔고, 거리와 사원을 지나갈 때마다 입밖으로 기도가 나왔던 것 같다.

치앙마이에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는만큼 이 땅의 사람들도 사랑해. 그러니 너희의 시선이 이 잃어버린 양을 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치앙마이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우따라딿으로 향했다.

우따라딿에서 우리는 우따라딿 라차팻 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수 방법을 시연했다. 윷놀이, 비석치기, 호떡 만들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교제하고 저녁엔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우따라딿에서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 준비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는 학생들의 미소로 가득 채워주셨다. ‘내’가 준비하는 선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하는 마음도 들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선교사님과 한 테이블에 앉았던 일이다. 선교사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간증해주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겹쳐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도 말씀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울컥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는 이번 선교에서 가장 의외의 인물이었다.

나는 대학생활에 교사선교회(TEM)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경기 서부 별무리 소속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던 우연한 별무리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이어져 태국 선교에 함께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이 느껴졌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다. 필연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마음을 그날 밤 팀원들과 함께 나누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밤이었다.

‘필연에 순종하기’라는 마음은 선교를 마치는 날로 다가갈수록 더욱 굳건해졌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언제든 부르신다면 순종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이번이 나의 마지막 선교가 아닌, 선교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 필연에 대비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주셨던 팀장님과, 사랑하는 팀원들께 너무나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태국의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려 한다.

어쩌면 방학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